

내년 문화체육 국비 역대 최대 확보

광주시 신규사업 33건 등 1658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펀드 100억
국악원 건립·5·18광주 명소화 추진

광주시가 내년도 문화예술체육분야 국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지역 국악계 대표 숙원사업인 광주국악원도 '광주전통생활음악당'이란 간판을 달고 신규 건립된다. 광주시는 "2021년 문화예술체육분야 국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95건 1658억원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27억원 증액된 규모로, 신규사업이 33건 408억원이나 반영돼 민선 7기 주요 현안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지역 국악계 대표 숙원사업인 광주국악원이 '광주전통생활음악당' 건립이다. 이 사업은 '전통 생활음악 생산·보급·향유 통

합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특화문화시설로 인정받아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이 반영됐다. 옛 광주여고 체육관을 리모델링해 추진하는 '아시아예술인재양성사업'도 40억원을 확보해 광주에서 아시아의 예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전액 국비만 투입하는 이 사업은 광주시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아시아문화전당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지역예술인재 양성교육 및 아시아 예술영재 교류 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5·18민주광장을 빛의 분수대, 빛의 타워 조성 등 민주와 예술을 융합한 아시아문화광장으로 리뉴얼해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만드는 '아시아문화광장콘텐츠조성사업'에도 20억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파사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국비 30억원이 반영된 점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2021년 개관하는 AMT센터 외벽에 설

치되면 광주의 새로운 미디어아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산업분야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출자(3호 투자조합) 100억원, 아시아콘텐츠 인터티브 월드 조성 5억원, 아시아 이스포츠산업 교육 플랫폼 조성 8억5000만원 등이 반영돼 지역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체육분야에서는 체육시설 조성 등 군특사업비 확보와 함께 2021년으로 연기된 광주수영선수권대회 개최예산 국비 5억원이 반영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최도시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광주시가 추진해온 문화예술체육분야 핵심사업이 상당부분 반영돼 품격있는 문화도시 광주를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며 "국비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동구 주민 절반 '혼자 산다'

실태조사 45% 1인 가구
식사·안전 등 맞춤형 지원정책

주민 절반가량이 1인 가구로 구성된 광주 동구가 홀로 사는 삶을 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광주시 동구에 주소를 둔 전체 5만809세대 중 45.2%인 2만2962세대가 1인 가구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은 30.2%로 집계됐다. 동구는 1인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황을 고려해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가 나섰다. 광주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한 1인 가구 실태 조사는 20대 초반부터 70대까지 고령 연령층의 1028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이뤄졌다. 세대별로 청년층 1인 가구는 조선대학교, 행정구역으로 북구에 속하지만 인접한 광주교육대학교, 동부경찰서 주변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청년층 1인 가구의 고민은 학업과 취업, 경제적인 독립, 불확실한 미래 등이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혼인 상태가 1인 가구 형성의 주요 배경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소득원과 사회관계망을 가진 중장년층 1인 가구, 여러 면에서 젊은 층보다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노년층도 존재했다. 1인 가구의 특성이 매우 다양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연령층 구분 없이 1인 가구의 공통 고민거리

는 식사 해결이었다. 불규칙한 식생활과 부실한 영양 섭취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여가 생활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1인 가구는 집 근처 산책을 제외하면 별다른 취미가 없었다. 특이한 점은 생각과는 달리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는 거의 없었다. 동물 대신 식물을 기르거나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1인 가구로 느끼는 자유로움과 외로움은 연결된 감정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일상이 생활과 건강에 해를 주는 단점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며 이를 해결하고 싶다는 인식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1인 가구의 공통된 걱정거리는 신변 안전이었다. 남성 1인 가구는 경제적인 빈곤에 대한 근심이 가장 컸다. 아파트 선호 등 주거 형태에 대한 욕구는 거의 없었다. 동구는 다양한 모습을 지닌 1인 가구의 특성 분석을 토대로 자치구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 안전망 구축, 건강과 주거 지원, 공동체 활성화, 문화와 여가생활 지원 등을 세대별 맞춤형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책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고, 연말께 1인 가구 종합정책을 세워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내부 다양성 때문에 1인 가구를 대법주로 분류하는 정책 수립은 지금의 시대상과 맞지 않는다"며 "개인별 삶의 경험과 맥락에 따라 세분화한 정책,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4일 시청 1층 광주은행 지점에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공익통장 '오월, 그날을 기억하며 넘어'에 가입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시장, 광주은행 5·18 40주년 기념 공익통장 '넋이' 가입

판매 수익금 일부 기증재단 기부
이시장 "나눔·연대 광주정신 확산"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일 광주은행 시청지점을 방문해 송중욱 광주은행장을 만난 뒤 5·18 기념 공익통장인 '오월 그날을 기억하며, 넘어' (이하 '넋이')에 가입했다. '넋이'는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을 기념하

고, 오월정신 계승 및 지역사회와 나눔의 대중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광주은행이 출시한 공익통장이다. 광주은행은 2021년 4월까지 판매한 수익금 일부를 출연해 2021년 5월 18일 (제) 5·18기념재단에 기부한다. 이 통장은 표지와 속지에 옛 전남도청, 5·18국립묘지, 5·18민주광장 등 주요 5·18사적지 사진을 삽입해 사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Storytelling)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이날 "1980년 5월을 기억하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현안에 공감하고 시도민께 감동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위해 주먹밥을 후원하는 등 지역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늘 앞서 나눔의 광주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자전거 정책자문관 김광훈 씨 위촉

광주시는 "지난 4일 자전거 전문가 김광훈씨를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자문관은 자전거 관련 정책 수립,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관련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조언한다. 김 자문관은 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

에너지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광주 권익위원회 자전거 안전 특별위원 등을 역임한 민간 전문가다. 광주시는 무인 공공 자전거 '타랑개'를 도입하고 상무역~광주시청과 평동산단에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지정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북구 '자활분야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광주시 북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자활분야 지자체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자활근로 ▲자활형성지원사업 ▲자활기금 활성화 ▲자활사업운영 등 4개 분야의 성과를 평가했다. 북구는 열악한 재정 여건임에도 전국에서 최초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을 조성·운영, 생산적 복지 실현에 이바지했다. 특히 지역 3곳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

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구는 지난 6월 광주시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9000만원, 8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에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실적 평가에서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얻은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